

변화와 발전속에 행복추구를...



이 태 화

(사)한국포장협회 PET필름 분과위원장

포장인 여러분!

2006년 병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포장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5년은 우리 포장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계에 유래없이 어려웠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지속되는 내수경기 부진과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2005년까지 지속된 고유가, 주요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원화절상 그리고 물류비 상승 등 제반 비용들의 부담 증가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전반의 악조건 하에서도 우리 포장업계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그리고 상생을 생각하는 겸양으로 난관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더욱 채질개선이 이루어져 이제는 그 어느 때 보다 내실이 다져지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포장산업의 미래 행복추구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6년 새해도 우리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전환기의 불안과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 지표로 볼 때 전반적인 경기는 2005년 보다 낙관적이지만 실물경기에서의 체감은 2005년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지속된 불경기로 강화된 우리의 체질로 2006년은 우리 포장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 포장계가 노력해야겠습니다.

2006년 포장계의 화두로 다음의 세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규수요 창출입니다. 우리끼리의 이전투구와 제살 깎기식의 경쟁이 아닌 각 업체 고유의 신제품 및 기술개발로 서로의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출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정체되어 있는 내수시장에서의 제한적인 경쟁이 아닌 보다 넓은 시장 개척으로서의 수출을 확대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포장업계의 기술수준과 제품경쟁력 그리고 인력수준은 해외시장개척에 있어 충분히 검증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제규모와 기술수준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래 Trend인 "친환경 추구"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포장문화를 선도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포장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